

전남 초중고생, 목포에서 역사 현장 교육

목포시-전남도교육청 근대역사문화 현장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근대역사문화유산 학습 장소 활용...목포 다양한 매력 알리는 기회



전남의 초중고등학생이 목포에서 역사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김중식 목포시장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20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전남권 학생들의 근대역사문화 현장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보유한 일제강점기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전남권 초중고등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추진됐다. 목포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활용 ▲ 각종 사업 기획·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홍보 ▲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 적극 협력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자료개발, 프로그램 활동 지원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목포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의 학생들에게 근대역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예비문화도시, 맛의 도시 등 목포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목포 근대문화유산은 학생들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목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증도면 여성단체협의회 총회 개최

코로나19 비대면 서면결의

신안군 증도면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미영)는 지난 19일 협의회 총회를 임원진 11명만 참석하고, 회원 43명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 증도면 여성단체협의회 총회에서는 협의회 회칙 일부개정, 임원 선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봉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식사배달 등으로 탄력 운영하

여 결식노인 방지 등에 노력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관련 많은 어려운 여건이 우려되나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로 취약계층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분기별 순회 경로당 중식 제공, 증도면 알리기 행사 참여 등 계획한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박재욱 증도면장은 "지역사회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외된 면민을 위하여 함께 노력 할 것을 당부"하고, "2021년은 증도면민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향토갯벌랜드 건립 15년...지역 관광명소로 '우뚝'

람사르습지 1732호이자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안향토갯벌랜드가 건립 15년을 맞이했다. 무안향토갯벌랜드는 해제면 일대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무안향토갯벌센터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캠핑장과 생태갯벌과학관 등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서남권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 관광객이 8만 2000명 방문하여 비대면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은 다수이용시설 폐쇄 조치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갯벌랜드를 안전한 가족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해상안전체험관 공식 운영할 예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특히 갯벌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1.4km의 탐방다리가 완성되면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다음달 5일까지

함평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창업 등 교육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험 지원시설이다. 함평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

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38억여 원을 투입, 학교면 죽정리 일원 1만 5385㎡에 숙박시설·실습농장·시설하우스·개인텃밭 등을 갖춘 체류형 지원센터를 지난해 말 조성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센터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간 운영된다. 모집규모는 기숙형 원룸 12세대(24.66㎡)와 단독주택 9세대(31.5㎡~39.2㎡) 등 총 21세대다. 함평=김광춘 기자

지원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입교 희망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입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별도로 공고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에 한해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영암군, 산림소득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접수

영암군이 2월 17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산림소득분야 보조금을 신청받고 있다. 산림소득분야 신청대상 사업은 총 11개의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저장시설, 임산물 상품화 사업,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이 해당되며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은 현지확인, 심의회 등 선정 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중복지원 신청자, 지점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정보화마을 설맞이 비대면 특판 행사

영광군 정보화마을(범성굴비마을, 군남용암마을)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인터넷 특산품 판매 행사를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개최한다. 범성굴비마을은 영광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명성이 높은 '굴비 상품(굴비, 오가)'을 53,000원부터 348,000원 가격대로 다양하게 준비하여 특판가로 판매한다. 군남용암마을은 농식품부가 인증한 1등급 생태환경 마을로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4색 떡국떡', '모싯잎 송편', '태양초 고춧가루', '참기름'등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상품은 ▲굴비정보화마을 인터넷사이트 <http://gulbi.invil.org> 또는 전화 061-356-4013 ▲용암정보화마을 인터넷사이트 <http://yongaminvil.org> 또는 전화 061-351-0878로 주문하면 된다. 아울러 영광군 정보화마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전남도청 윤선도홀(1층 로비)에서 비대면 특산품 전시 행사를 실시하며, 전시행사는 26일 14:00~16:00 '네이버쇼핑 라이브방송'에서도 현장 중계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